



IBKS Spot Comment

증권

우도형

02) 6915-5651

dnehgud123@ibks.com

키움증권

4분기 영풍제지 미수금 손실 인식은 불가피

키움증권, 영풍제지 미수금 4,943억원 발생, 주가 24% 하락

10월 20일 장마감 후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미수금이 4,943억원 발생했다고 공시함. 23일 키움증권의 주가는 23.9% 하락 마감. 영풍제지는 18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19일 거래가 중지되었음. 금융당국은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 이에 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영풍제지 거래재개 후 주가에 따라 미수금 손실액 결정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액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후 주가가 하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종가는 23,730원에서 33,9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고 미수금 손실액은 0~882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됨. 만약 첫 거래 재개 일에 하한가를 간다면 손실액은 882억원에서 2,1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총 4 거래일 하한가를 간다면 미수금 손실액은 최대 3,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이는 과거 CFD 이슈로 최대 4 거래일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하락임

4분기 미수금 관련 손실 및 이자손익 감소는 불가피

미수금 관련 최대 손실액은 3,550억원 수준으로 생각됨. 다만 고객의 변제에 따라 미수금은 추후 추가적으로 회수될 수 있음. 4월에 발생한 키움증권의 CFD 관련 손실 800억원이 아직 전체 회수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시 미수금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가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신용융자 잔고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따라 키움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업 전체적으로 Brokerage 관련 이자손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미수금 증가에 따른 신용 리스크 관리 강화될 전망

미수금 증가로 업계 전체가 신용 관련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고 있음. 20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258억원으로 영풍제지 거래중지 전 5,174억원 대비 2배 증가한 수준. 키움증권은 18일 영풍제지 및 미결제위험이 증가한 종목 20개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하였으며 19일, 20일에도 추가적으로 8개, 15개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하였음. 다만 키움증권은 타 대형 증권사 대비 영풍제지의 위탁증거금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손실발생 후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생각됨

표 1. 미수금 발생 주식수 추정

날짜	종가 (원)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 (억원)	미수금액 (60%, 억원)	증거금 (40%, 억원)	미수금 주식수 (백만주)
2023-10-13	47,700	457	-	-	
2023-10-16	48,300	471	-	-	
2023-10-17	48,400	512	-	-	
2023-10-18	33,900	2,768	-	-	
2023-10-19	33,900	5,257	-	-	
2023-10-20	33,900	5,497	4,943	3,295	17.1

자료: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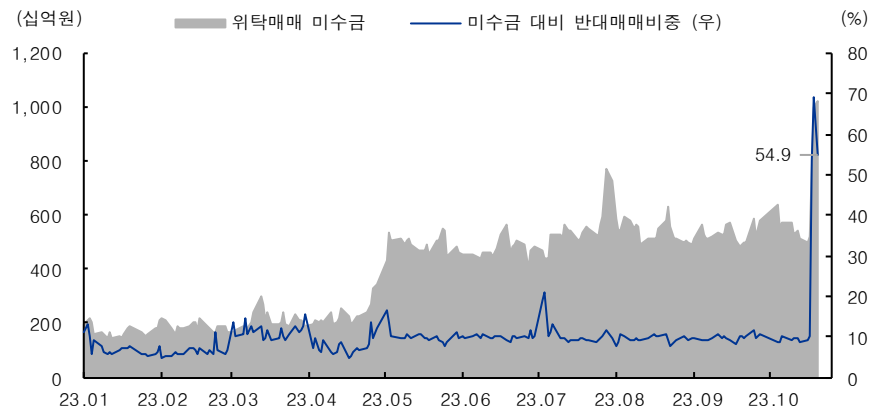
주: 미수금 주식수 = (미수금액 + 증거금) / (13~17일 추가 평균)

표 2. 키움증권 미수금 손실 규모 추정

구분	하한가	종가 (원)	회수 가능 금액 (억원)	미수금 손실액 (억원)
case 1	1회	23,730~33,900	4,061~5,802	0~882
case 2	2회	16,611~23,730	2,843~4,061	882~2,100
case 3	3회	11,628~16,611	1,990~2,843	2,100~2,953
case 4	4회	8,139~11,628	1,393~1,990	2,953~3,550

자료: IBK투자증권

그림 1. 위탁매매 미수금 및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IBK투자증권